

“인문도시 동구’로 민선 8기 후반에도 진일보할 것”

2025 광주 동구 현황·주요 역점사업

#현황

- 인 구 수 10만6203명
- 면 적 49.32㎢
- 행정구역 13개동 207통 1171반
- 직 원 수 744명

#역점사업

- 미래먹거리 AI 신산업 육성
- 공공복지와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
-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
-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미래도시 건설
- 스마트 안전건강도시 기반 조성
- 성숙한 인문도시 광주 동구 구현



2025 새해설계

임택 광주 동구청장

출범 3년, 6대 분야 48개 정책 검토
민생 안전, 지역경제 회복 지원
광주 동구를 예술여행의 메카로
신(新) 산업 기반 미래 활력 도모도

“주민의 일상 속 행복을 찾아드리는 한 해 만들겠습니다.”

임택 동구청장이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22일 신년사를 통해 민선 7기와 8기 출범 이후 지난 6년간 쌓아 올린 성과를 발판 삼아 주민들의 일상 속 행복을 찾아주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지방자치 30주년과 민선 8기 출범 3년차를 맞이하는 해인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 당초 계획했던 6대 분야 48개 정책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먼저 지난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예년보다 더 악화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광주상생카드 특별할인’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 남부권 광역관광과 수소도시 등 광주 동구의 미래 활력을 기대할 수 있는 신(新) 산업을 기반으로 일상이 관광인 도심 속 ‘체류형 예술여행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광주 동구를 ‘예술여행 메카’로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동구만의 대표 관광 브랜드인 ‘예술여행 광주 동구랑’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생활·관계 인구를 확장시킨다. 동구 관광 3대 축을 중심으로 ‘동구 7선 예술골목여행’ 코스를 개발, 원



임택 광주 동구청장.

도심 골목과 5·18광주민중화운동, MZ 세대 감성 자극, 인문 감성 관광 등에 주력한다는 것이 동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 선포한 도시브랜드 ‘인문도시 광주 동구’도 한단계 더 도약한다. 광주 동구민들이 마을 안에서 인문활동을 돕는 ‘생활 친화적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해 365일 설레는 36.5℃ 따뜻한 인문도시로 성장한다.

구체적으로는 △도서관이 도서관을 살피며 성장하는 자생력 강화 △작은 도서관의 연계를 통한 주민 인문 활동 지원 등 두 가지를 목표로 책배달 서비스 확대, 사립작은도서관 플랫폼 구축,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독서교실 운영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새해에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도

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건강도시’ 조성 원년으로 삼고 기존에 분산됐던 정부와 보건·복지·의료 시스템을 일원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광범위한 데이터 관리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임 청장은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면서 “20년 이상 낡고 오래된 저층 주택은 단열과 방수, 화재 피해에 취약하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시범적으로 추진해 온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초부터 저층 주거지 사업 대상 지역 내 가구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살피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시범가구를 선정해 이르면 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다.

임 청장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조직개편을 통해 자치행정국의 국·서무과를 ‘마을자치과’로 지정했다”면서 “동시에 인구변화·지방소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도 키워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유아·어르신·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먼저 챙기는 ‘세심하고 촘촘한 동구청 공감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기본 7대 서비스에 방문간호와 방문 구강 서비스를 추가·운영키로 했으며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밀도 있는 맞춤형 행정 지원 서비스도 펼쳐나갈 방침이다.

임 청장은 “인문도시 광주 동구’는 민선 8기 후반 기에도 끝없이 주민의 질문에 답을 찾고 ‘미래가 기대되는 희망 도시’를 위해 진일보할 것이다”며 “이를 위해 올 한해도 ‘동구의 희망은 주민 속에 있다’는 각오로 힘차게 뛰겠다”고 말했다.

민원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서구, 둘째아도 ‘행복택시’ 탄다... 양육 지원 확대

영유아 안전 이동 택시 쿠폰 등 출산·양육 환경 개선 위해 지원 확대

광주 서구는 올해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맘 행복택시’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서구는 지난해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해당 사업을 올해부터 둘째아 세대까지 확대했다.

‘아이돌맘 행복택시’는 영유아와 회복기 산모가 동반 외출 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아이의 안전과 산모의 이동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둘째아 이상 출산 세대다. 출생신고 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1만원권 택시 쿠폰 20매를 우편으로 전달한다. 이 쿠폰은 영유아를 동반한 외출 시 택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이동 지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서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주빛고을콜택시와 협력해 전용 콜번호

(062-456-4900, 062-446-4911)를 운영하는 등 최우선 배차 시스템을 도입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김명숙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은 “출산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출산의 기쁨을 모든 지역 주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육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심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

남구, 에너지 효율 극대화 사업 연중 추진

쿨루프 설치·LED 교체 등 진행

광주 남구는 에너지 자립·복지 실현을 위해 에너지 효율 극대화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에너지 분야에서 추진되는 세부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을 비롯해 취약계층 쿨루프 설치, 취약계층 LED 교체,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 LPG 용기 시설개선 등 5개 사업이다.

이는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감과 동시에 기후변화 위기에도 대응하기 위함으로, 전체 사업 예산은 32억46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남구는 태양광과 태양열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활용하는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관내 주택과 건물 334곳을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 투입하는 사업비는 28억60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오는 8월까지 기후 위기 취약계층 가정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서 3억6900만원을 투입해 34가구와 다중이용시설 1곳의 옥상에 건물 온도를 낮추는 쿨루프를 설치하고, 오는 11월까지 취약계층 세대 70곳과 사회복지시설 4곳에 LED 교체 공사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이곳에는 낡고 오래된 전등 등을 대체할 고효율 LED 793개가 보급된다.

이밖에도 오는 5월부터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 관내 65세 이상 노인가구 125곳에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를 지원하며, 6월부터는 LPG 용기 시설개선 차원에서 고무호스를 사용 중인 28세대에 700만원을 투입해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준명 기자

북구, 민생경제 활성화·소상공인 지원책 ‘총력’

북구사랑상품권·신성장센터 등

광주 북구는 새해를 맞아 지역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민생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2일 밝혔다.

북구는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신성장 지원센터 조성’, ‘AI 소상공인 지원시스템 구축’, ‘골목형 상점가 맞춤형 컨설팅 및 브랜드 개발 지원’ 등 4개의 중점 시책을 연중 적극 추진한다.

먼저 지역화폐의 일환인 ‘북구사랑상품권(가칭)’을 연내 발행해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따른 민생 회복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북구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지난해 제정한 조례를 바탕으로 오는 2월부터 TF팀(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행 방식, 규모, 할인율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해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 총 12억5000만원을 투입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올 상반기 중으로 신안동에 위치한 태봉생활체육관 유휴 공간을 코워킹스페이스, 미디어작업실, 시장매니저 사무실 등을 갖춘 ‘소상공인 신성장 지원센터’로 탈바꿈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삼아 지원에 나선다.

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

화하기 위한 맞춤형 강연, 체험, 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영상편집, 화상 회의, 디지털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디지털 소상공인 육성을 도모한다.

아울러 ‘AI 기반 소상공인 통합 지원시스템’ 개발을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윈스톱으로 접수·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접수창구’ 구축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양방향 AI 챗봇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골목형 상점가의 특색을 반영한 차별화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맞춤형 컨설팅과 골목형 상점가의 정체성을 대외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 개발을 지원해 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한다는 방침이다.

윤준명 기자

광산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기본교육 성료

광주 광산구는 22일 수완문화체육센터에서 202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와 생활안정,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공공형 일자리 사업이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들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과 안전 의식을 격려하기 위해 △산업안전 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을 진행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규정과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직장 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